

農業의 現況과 來日



李 殷 雄 教 授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1. 머리말

월남하면 아마도 먼 나라 이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다녀 온 나라의 하나 일 것이다. 국군의 과병 참전으로 이룩된 한월관계는 잊을 수 없는 고귀한 희생과 더불어 깊은 우호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사절단이 파견되어 월남 농업개발사업을 돕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월남의 농업에 대하여 소개된 책자나 문헌은 많지 않다.

최근 월남정부는 농업개발의 일환으로 메콩델타지역의 개발을 계획하고 그 일부로서 고공(Go Gong) 지역시범농업개발사업을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의 차관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용역에 우리나라 농업진흥공사가 참여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 사업에 농업생산기술 개발에 관한 자문역을 띄우고 지난 9월에 2주일 동안 월남의 수도 사이공시와 이곳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미토(My Tho)시에 머무르면서 월남정부 농림부 산하 관계기관, 농사시험장, 농과대학 및 FAO 월남지부 그 밖에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농촌을 돌아보며 농민들과도 대담하고 주월 한국 대사관과 파월 한국농업기술사절단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얻은 지식을 종합하여 월남농업에 대하여 분석 검토하여 보았다.

또한 월남의 수도 사이공시도 구경하는 한편 이곳 시민들의 생활면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두루 살펴 보았다.

짧은 기간에 듣고 본 것이기는 하지만 독자의 참고가 될까 하여 이에 보고 하는 바이다.

2. 월남농업의 현황

(1) 일반 현황

월남은 북위 8°33', 동경 104°내지 110°에 걸쳐 위치하고 있어 전형적인 열대농업권에 속하여 있는 나라로서 전국토 면적은 우리 나라 남한의 약 1.8배가 되며 총인구는 약 18.7백만이고 그의 약 6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국을 이루고 있다.

기후는 물론, 열대기후이지만 몬순(Monsoon)의 영향을 받고 있어 우기(雨期)와 건기(乾期)로 뚜렷이 구분되며 연평균 기온은 해발 0m에서 27°C이고 연중을 통하여 최고와 최저 차이가 3~4°C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우기와 건기의 시기적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며 기온 역시 지대를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고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고도 100m 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은 0.6°C씩 낮아진다. 그리고 우기라고 할지라도 공기습도가 낮고 소나기가 수시 있으며 무더운 느낌을 주지 않아 지내기에 좋다. 옛부터 사이공을 가르켜 남국의 파리라고 하였는데 열대지방치고서는 가장 살기 좋은 기후라는 것도 그와 같은 말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토의 이용상황을 보면 경작가능면적은 약 600만 ha로 추산되고 있으나 재배면적은 그의 약 2분의 1밖에 안되는 304만 ha에 지나지 않는다.

월남의 주요농산물은 쌀이며 현재 벼의 재배면적은 총 작물재배면적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쌀은 월남 국민의 주식량이 되어 있다.

그밖에 식용작물로서는 고구마, 가사바, 땅콩, 옥수수 및 콩 등이고 바나나, 파인애플 및 코코넛 등이 주요한 과수이며 그밖에 각종 열대과수가 재배되고 있다. 특용작물로서는 섬유작물에 양마(어저귀) 황마, 복화, 카폭(kapok) 모시풀, 및 팜풀 등이 있고 그 중 특히 양마는 목불용의 포대원료로 쓰이며 널리 재배되고 있다.

또한 고무나무, 차, 커피, 담배, 사탕수수 등의 공업원료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주요농산물의 생산량을 살펴 보면 쌀은 재배면적 약 250만 ha에서 백미 약 340만 ㄲ를 내고

있으며 고구마는 약 50만 ㄲ, 땅콩 3.5만 ㄲ, 옥수수 3.5만 ㄲ, 콩 및 망고두 2만 ㄲ, 그밖에 차 5천 ㄲ, 고무 3만 ㄲ, 사탕수수 33만 ㄲ, 커피 약 4천 ㄲ, 바나나 18만 ㄲ, 일담배 약 8천 ㄲ 등을 내고 있다.

한편 주요 수출농산물을 살펴 보면 자연고무가 으뜸으로서 연간 570만 달러 차 24.2만 달러, 커피 23.1만 달러 등이 큰 것 들이고 그밖에 커피, 카폭, 원면, 각종 약초 및 카사바가루(粉) 등이다.

### (2) 농업지대별 현황

월남의 농업지대를 기후, 토양, 지세 등의 자연조건에 따라 구분하고 각 지대의 농경방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A) 메콩델타지역

이 지역은 저지대이며 메콩강과 밤코강의 범람으로 인하여 형성된 충적토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50%) 있으며 면반토(33%) 염토(9%) 그 밖에 유기질토와 저위부통회색토양으로 되어 있다. 이 지역의 우기는 5월부터 10월까지이고 이 기간 중에는 월 평균 강우량이 230~300mm에 달하며 1, 2, 3 및 12월의 건기에는 50mm 또는 10mm이하가 된다.

한편 기온은 건기가 오히려 우기보다 2~30° 낮다.

지역	인구 (1만)	면적 (1천km <sup>2</sup> )	경지가능면적 (A)(1천ha)	재배면적 (B)(1천ha)	B/A%	연평균기온 (°C)	연평균강우량(mm)
메콩델타지역 (A)	992.1	40.4	3,500	1,903	54	Rach Gia 27.3	2,014
동부지역 (B)	299.2	27.8	1,500	376	25	Sai Gong 27.0	1,953
중부해안지역 (C)	553.9	55.7	700	627	90	Hue 25.2	2,940
중부고원지역 (D)	97.7	50.4	300	136	45	Ban Me Thout 23.4 Dalat 21.0	1,711 1,626
총계	1,842.9	174.3	6,000	3,042	51		

제 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작지도 많거니와 경작가능지가 많으면서 비경작지가 약 반이

나 되는 160만 ha가 있는 지역이다.

현재 작물 재배는 벼농사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1기작에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특히 저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우기의 홍수에 대비하는 부도(浮箱, Floatingrice)의 재배가 있고 또 하류지에서는 염해지가 있으며 직파재배가 상당한 면적에 이루어지고 있다. 재배품종은 최근 IR계통(IR8, 20, 24, 26)이 보급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단연 재래종(TN)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그밖에 작물로서는 옥수수 콩, 채소등이 주된 것들이다.

#### (B) 동부지역

이 지역은 해발 100~200m에 달하고 메콩델타 해안지역과 중부고원 사이의 지역 및 사이공지역을 말한다.

토양은 회색토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51%) 홍토(26%) 충적토(9%) 그밖에 포드솔성토 및 저위 부통회토로 되어 있다.

이 지역의 기후도 메콩델타 지역과 비슷하며 우기가 6월부터 10월에 걸쳐 있고 월별 강우량도 탁지아와 비슷하다. 토지의 이용율이 25%로써 가장 낮은 지역이며 개발가능면적이 110만 ha가 있는 지역이다. 지세적으로 보아 개간에 매우 유리한 지역이라고 보여지는 지역이다. 주요 작물로서는 역시 벼농사이고 그외에 고무나무 바나나, 파파야 망고 땅콩 및 카사바 옥수수 등이 있다.

#### (C) 중부해안지역

이 지역은 트루옹손 산맥과 남지나해 사이에 놓여 있는 협소한 해안평야로서 대부분 충적토로 되어있는 비옥한 지역이며 토지의 이용도도 가장 높고 작물 재배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강우량은 약 2,950mm로서 가장 많으며 이 지역은 8월부터 우기가 시작 되어 다음해 1월에 끝나며 특히 10월 및 11월에는 각각 600mm 이상의 강우가 있다.

벼의 재배는 연 2기작 이상이 되고 있으며 옥수수, 땅콩, 녹두, 채소 등으로 연 3모작을 이루고 목화, 일담배, 포도등이 재배되며 해안선

을 따라 코코넛 재배가 전개된다.

#### (D) 중부고원지대

이 지역은 월남의 고원지대로서 해발 500m (Ban Me Thuot), 800m 푸레이크(pleiku) 및 브라오(Blao) 1,200 (Dalat), 등 고지를 보이며 다라트지역은 평균 기온이 19°C이고 연 강우량 1,600mm로서 연중 서늘한 기후를 보이고 있는가 하면 곳에 따라서는(바오록(Baoloc)·람동(Lam Dong)는 연중 서늘하고 강우량은 3,000mm가 되며 또 아주 건조하여 1,300mm의 강우량 밖에 보이지 않는곳 (후본; phu Bon)도 있다.

이 지역의 토양은 대부분이 홍토이며 (62%) 포드솔성토양(17%)과 사질회토(18%)가 주된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적조건으로 인하여 온대 및 아열대 적작물들이 다양하게 재배됨으로서 열대원의 월남이지만 각종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월남국민의 수요에 응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 (3) 월남농업의 전망

월남하면 옛날 삼국지에서 보는 것 이외로는 근세에 가장 오랜 전란을 겪은 나라의 하나 일 것이다. 휴전협상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총성이 멎을줄 모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약 19백만 인구가기는 하지만 사이공에는 남자 한 사람에 여자 7명꼴이라고 하며 인구의 증가율은 2.6%를 추정하고 있다.

1964년까지만 해도 쌀을 30여만톤 수출하는 나라로 알려졌던 월남이 근자에 와서는 연간 30만 의 쌀을 수입해야만 하고 사탕수수, 목화, 옥수수, 담배등 열대농작물의 재배에 알맞고 넓은 경지 또는 경작가능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설탕을 도입해야만 하고 담배도 옥수수도 도입해야 하게 되었다. 물론 그것은 오랜 전란의 죄라고 할 것이다.

월남에는 현재 경작지 면적과 거의 같은 약 300만 ha라고 하는 광대한 면적이 미개간상태로 남아 있으며 또 기경지에서의 작물재배 역시 재래 농법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미경지의 개간과 농법의 개량 즉 우량품종의 보급, 및 자연조건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2기작 또는 다모작체계의 확충 비배관리 등을 한다면 현금의 수량을 수배로 늘리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현금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식량의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진다.

오직 선진국가들은 이를 위한 지원에 인색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외국의 자본적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그의 원동력은 월남국민의 7전8기 불굴의 정신력과 일치 단결 총화를 이룩하여 산업개발에 매진하려는 의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전쟁으로 인한 생산성의 저해를 극복하려는 당면 과제로서 식량자급을 위한 식량작물의 증산, 공업원료작물인 고무, 사탕수수, 차, 커피, 양말등의 증산과 그의 수출을 꾀하여 농업생산을 위한 투자자원의 기회 확보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으로서는 관개용수시설 등의 수리사업의 추진 비료공장의 건설, 주요농작물의 증자갱신 농업의 기계화 그리고 농업시험연구사업의 강화 등을 꾀하려는 것이다.

월남의 농업생산의 발달 여지는 이 나라 각종 산업중 가장 기대 할만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 국가 경제의 주축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경험하듯이 각종 산업의 발달은 그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르는 것이지만 농업이라는 산업은 특히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여건에 대한 반응 조차도 매우 둔한 것이 상례인 것으로 이 곳에서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개발시책이 무엇보다도 중요시책으로 채택되어 과감한 투자와 착실한 수행이 이루어져야만 하겠다고 생각되며 이것이 이룩 되는 날에는 세계적으로 위기에 빠지는 식량난을 해결하는데 당사 월남만이 아니라 세계 인류 평화에 크게 기여 하게 될 것으로 믿어진다.

## 2. 파월 한국농업기술사절단과 고콩지역시범 농업개발사업용역단의 활약

주월한국농업기술단을 월남 농어업기술요원의 훈련과 농촌 경제개발 5개년(1971~75) 계획 및 전후 복구사업(1973~77) 계획에 수반되는 기술지도를 위하여 1966년 12월 22일 한, 월 농상간에 대 월남 농업기술지원협약을 거쳐 1967년 3월 국무회의결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1967년 3월에 제1차년도계약 (AID)에 의거하여 작물생산부, 수리부로 구성 18명의 단원을 파견한바 있다. 1968년에는 34명 69년에는 27명 70년에는 31명 1971년에는 한월정부간에 농업기술협력 약정서조인으로 주월한국농업사절단으로 개칭하여 30명을 파견하였으며 72년에는 23명 그리고 73년 이후는 전액 한국정부 부담으로 본단의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73년에는 16명 74년현재는 단장 徐相仁씨를 비롯하여 작물생산부 3명 수리부 13명 농업 기계부 2명 임업부 1명 수산부 1명 그밖에 분야를 비롯하여 20여명이 각분야에서 파이오니아적 구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밖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약간명이 파월되어 일하고 있으며 공영건설회사가 사이공 국제공항 건물확대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편 1968년도 대통령 대월남정부기술지원 지시에 따른 30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고콩지역 수리사업에 예비조사단 파견이 있었고 72~73년에 동사업 타당성조사단이 아시아 개발은행 (ADB)으로 부터 이지역이 시범농업개발사업용역을 농업진흥공사가 맡아서 했으며 이 사업의 자문용역 계약체결을 다시 농업진흥공사가 금년 6월 26일에 657천달러에 맡아서 향후 3년간에 걸쳐 수행하게되어 8월초에 사무실을 사이공에서 약 70km 떨어져 있는 미토(My Tho) 시내에 두고 10여명이 파견되어 일하고 있다.

한편 월남에 현재 남아 있는 한국인은 2천 내지 3천명 정도 인데 어떠한 기업이나 상업을 하

여 성공한 사람보다는 전쟁중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이제는 돈도 벌지 못하고 돌아오기가 속스럽거나 여비조차도 없는 사람도 많다고 하며 눈에 띄는 한국인 기업체는 보기 드물고 한국 식당으로서는 국제주점 (Internatinal House), 지미집 (知味집), 뉴우서울 등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한국 상품의 선전용 간판은 사이공에서 미토에 이르는 사이에 눈에 띈 것이라고는 미풍 (味豊)이 두 군데에 있었을 뿐이다. 사이공이나 그 밖에 작은 도시에서 눈이 가장 많이 띄는 것은 일제 혼다의 싸이카이며 이들의 말에 의하면 혼다싸이카가 110만대 월남에 수입되었다고 한다. 또한 냉장고, 선풍기 등도 모두 일제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농업기술사절단의 활약은 규모에 비하여 개개인 모두가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월남정부의 신임이 대단하다. 특히 徐단장은 자기의 직분외에도 이곳 월남에 오고 가는 한국 사람의 뒷바라지를 잘해 주고 있어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또 이곳 임업기술사절로 있는 鄭선생은 총소리가 아직 가지지 않은 월남각지 벽촌 산림을 돌아다니면서 탁월한 자문을 하고 있는 모습은 항상 인명은 재천이요 성심껏 일하는 것만이 보람이라고 하였다.

### 3. 맺는 말

월남은 기후, 토양 및 지세조건으로 보아 농업생산의 보고에 틀림없다. 그래서 강대국들의 눈독에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

에 오랜동안 타국의 지배를 받아왔고 또 그러한 가운데 민족분열도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월남을 지원하고 저 참전하였고 많은 희생을 냈다. 이제 휴전협상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평화가 울려면 아득한 것만 같고 현재 이곳 군민들은 광대한 개발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농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리고 있는 형편이다. 또 구체적으로도 식량 위기를 맞고 있는 때이다.

이에 즈음하여 선진국들은 월남을 도와 이곳 농업을 개발하여 세계 인류의 식량평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월남을 지배해온 불란서나 일본은 물론 월남전쟁에 참여한 미국이나 우리 나라는 이 점에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나라는 이들 다른 나라와는 달리 북한 공산집단과 대치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이들을 도와 우리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주월 대사 김영관선생, 이대용공사 그리고 김형근참사 등도 월남에 한국적 농업을 뿌리 깊게 심어야 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대단하였다. 즉 농업기술사절단과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로써 사업 추진의 지원에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짧은 기간이나마 이곳 농촌과 농업을 돌아본 필자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점에 대한 문의와 의견 등을 진지하게 묻고 들려준 것을 오히려 감명 깊게 느꼈으며 감사하는 바이다.

우리는 월남의 농업개발이 지니고 있는 깊은 뜻을 이해하며 당국은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시책을 폈으면 한다. 또한 우리 젊은 농학도도 이러한 일에 대하여 깊은 흥미를 가져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